

## 대화의 시대

현대는 대화의 시대이다. 대화라는 말만큼이나 환영을 받는 말도 드물 것이다. 대화의 광장이니 대화를 통한 협상이니 하는 말도 어떤 마술적인 힘을 가지는 것처럼 들린다. 원통 장벽으로 둘러싸인 인간 관계 속에서 서로 툭 터놓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 장벽을 제거 한다는 것도 꽤 후련하고 시원스러운 일임에 틀림 없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대화를 한다는 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서로가 알지 못했던 대립이나 이해 관계가 더 예리하게 부각되어져서 오히려 대화를 하지 않았던 것보다 못하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분명히 말이라는 것과, 말을 밀반침해 주는 마음의 문제를 미처 정리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일이라고 하겠다. 하기가 대화를 진행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자기 사색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들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자신이 대화에 임하는 기초적인 마음의 자세에 대하여 기본적인 정리를 해 두어야만 할 것이다.

모든 대화의 배경에는 침묵이 있다. 침묵을 배경으로 하지 않는 대화는 그 깊이를 상실한 언어의 나열이 되고 말 것이다. 악보의 휴지부가 훌륭한 음악인 것처럼 인간의 생활 속에서 대화로서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침묵의 순간이 없다면 인간 사회는 마치 정신 병자들의 수용소와도 같이 될 것이다. 될 소리, 안될 소리를 함부로 늘어 놓기만 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무한한 우주의 영원한 침묵이 나의 마음 속에 소스라치는 전율을 느끼게 한다는 파스칼의 말을 한번 다시 음미하고 싶다. 산간 벽지

나 농촌의 구석에까지 앰프를 통해 흘러 나오는 슬한 방송의 광고나 소음이 침묵에 잠겨있던 우리의 마을의 공간을 완전히 점령하고 있다. 이제는 방송 내용보다도 라디오에서 흘러 나오는 소음에 젖어버린 마음이길래 갑자기 정전이나 되어서 방송이 중단되면 깜짝 놀라곤 한다. 소음에 놀라던 마음이 이제는 침묵에 놀라게 되었다는 말이다. 만일 우리의 공간을 메우고 있는 방송의 소음어가 우리의 일상적인 대화의 본진이 된다고 하면 참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도 어처구니 없는 곳으로 바뀌어지고 말 것이다. 아득한 산울 배경으로 하고 들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농부의 고독과 침묵은 그대로 벽지의 구체성을 나타내고 있다. 농민은 산과 들의 고독을 즉 자연의 고독을 몸으로 표현해 주고 있다. 그 산과 들의 고독이 그대로 농민들의 고독이 되어버린다. 이러한 고독의 구체성이 현대 메스컴의 소음의 번거로움에 침식을 당하고 있다.

언어의 만능 사상의 바닥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서적인 밑받침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과 창조의 긴장 관계를 다룬 신학이 몹시도 어렵다. 컬럼비아 대학의 사회학 교수 Edward Hall은 그의 저서 <침묵의 언어—The Silent Language>에서 인간의 말 이외에도 시간과 공간의 언어가 있다고 지적했다. 언어가 아닌 언어가 오히려 말의 교환보다 더 근본적인 문화 현상이라고 했다. 어떤 특정한 말에 대한 변동으로서 하는 말은 늘 가시가 돋혀있다.

그런 말은 역시 고독한 말이 되고 만다. 현대의 우울증은 이러한 인간의 말을 침묵과 분리시켜 고독하게 만든 테서 비롯된다. 침묵의 추방이 인간의 죄의 실상일 것이다. 투명하고도 아득히 넓은 침묵

이 말 자체를 투명하게 만든다. 구름과 같은 말이 침묵 위에 떠 있다고나 할까?

인간은 침묵에서 태어나 또 다른 침묵을 향해 가는 어간에 살고 있다. 두 개의 침묵에서 오는 이중 반향을 가지고 있다.

순결하고 소박한 근원성을 지닌 말은 인간이 태어난 침묵에서 이어 받고, 두서가 없고 하염없이 하는 연약한 말은 인간이 어쩔 수 없이 돌입할 죽음의 침묵에서 받는 것이다.

잔·풀은 인간의 말 속에서 이러한 순결과 소박한 흔적과 아울러 죽음을 위해서 준비하며 메아리치는 말의 부질없음을 지적했다.

침묵에서 이탈한 말은 이미 그 본래의 힘을 잃어버렸다. 바벨탑 아래에서 언어의 혼란을 겪은 인간의 참 모습을 우리 자신 속에서 찾아보아야 하지 않을까?